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 06 [32~34]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A]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축루(축루)*같이 입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머슴껏 솟아올라
 7을 들 불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험(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험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져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 공산 축루 :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 베갯머리.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리곰'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입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모두 입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츠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입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입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험'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7을 들 불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입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B]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7. 06 [25~27]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이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블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늑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흥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흔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읍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문왕과 후비 :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12.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13.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글가 대평성디'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글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14.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우미,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윗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11A [40~42]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썸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
 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
 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이샷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피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이샷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이샷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복년 :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믿겠습니까 :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중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썸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6. 09AB [34~38]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
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

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알이 부취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
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
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
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
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양
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
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
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
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
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
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
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쭙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
덕 위에 누웠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
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
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
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
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
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짹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
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
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와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6. 06B [31~33]

(가)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외걸새에 용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잠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훈 들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라

-작자 미상-

(나)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
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위 갈 제 적막 공규(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호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빗비 7읍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작자 미상-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짜리골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민둥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이 집에 정든 임 그는 늙지 마세요

ㄱ

[A]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ㄴ

[B]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ㄷ

[C]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한 번 가신 우리 임은 그 언제 오나

ㄹ

[D]

당신이 날만침만* 생각을 한다면

가시밭길 천 리라도 신발 벗고 오리라

-「정선 아리랑」 중에서-

ㅁ

[E]

*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쌍비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 웨웨터: 외쳐.

* 비사리춤: 벗겨 놓은 짜리 꺾질의 묶음.

* 날만침만: 나만큼만.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에서는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임이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 ② [B]: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 ③ [C]: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 ④ [D]: 임이 떠나간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 ⑤ [E]: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

33.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집’, ‘뒤주’, ‘궤’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보면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전하여 주렴’과 (다)의 ‘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6. 06A [31~33]

(가)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 남구만 -

(나)

㉡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시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짚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 위백규, 「농가(農歌)」 -

(다)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삐죽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피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달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논을 썩레질하고 이룬모를 내어 보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 품 진 : 품앗이를 한.

* 둘러내자 : 휘감아서 걷어 내자.

* 부룩 :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다)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② (나)의 <제2수>에는 생성의 이미지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밝아 오는 '동창'과 '노고지리'의 지저쿰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물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비 온 끝에 별'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 ② (나)에는 (다)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 ③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 ⑤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09A [43~45]

(가)

구슬이 ㉠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 외따로이 살아간들

㉤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작자 미상, 「정석가」-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뚝*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였어라.

-작자 미상-

* 거머희뚝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④ (가)와 (나) 모두 걱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② 화자가 '입'이라 여긴 '거머희뚝'한 것을 향해 '워령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입'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⑤ 화자가 '입'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3. 06 [13~18]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
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뚜막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닳고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장석남, 「배를 매며」-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
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계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
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
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
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
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
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
(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
(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
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
대니 양금(鴛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꼬.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뭍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딪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딪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딪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딪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딪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딪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입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1. 11 [13~16]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
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
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A]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서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B]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릅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어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
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1. 06 [19~22]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넘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다.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흑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이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9. 09 [46~50]

(가) 鷺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해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지 엉킨 묵은 발도 험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 훌륭한 군자들이 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세정: 세상 물정.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땀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발두둑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밥 짓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더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들성들성하게만 돋아나 있고 집은 낮은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네. ‘여름에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됩지요.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밭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볕이 때에 맞고 들판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향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땀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4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4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공감할 수 없는 것
㉡: 서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 ② ㉠: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 서술자가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 ③ ㉠: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
㉡: 서술자가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인식하는 계기
- ④ ㉠: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원인
㉡: 서술자가 체념적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
- ⑤ ㉠: 화자의 외로움을 확대시키는 원인
㉡: 서술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원인

49.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5~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6. 09 [15~21]

(가)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쫓아 ㉡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쩡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돌려 두니
㉢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턴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트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6. <보기>는 (가)의 작가가 쓴 한시(漢詩)이다.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궁궐 담 남쪽 언덕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리니
돌아가는 꿈이 멀리멀리 옥당(玉堂)에 오른다
두견새 슬피 울자 산에 대나무가 찢어지니
고신(孤臣)의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대감의 이유	현실의 확인	현실 극복을 위한 행위
봄	동풍	(ㄱ)	저 매화를 꺾어 임 계신 데 보내고자 함
여름	새 잎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음	(ㄴ)

- | | |
|-------------|------------|
| (ㄱ) | (ㄴ) |
| ① 녹음이 깔림 | 제도를 잘 갖추 |
| ② 암향이 일어남 | 백옥함에 담아 둠 |
| ③ 산과 구름이 험함 | 오색실을 풀어 냄 |
| ④ 적설을 헤쳐 냄 | 부용을 건어 놓음 |
| ⑤ 가뜩 냉담함 | 임의 옷을 지어 냄 |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4. 09 [14~18]

(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A]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
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
하는 것들은 모두
[A]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①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
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글은 : 때에 전.

(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목가적인 서정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묘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
- ⑤ (가)~(다)에는 내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15. [A]와 [B]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문을 쓰고자 한다. 그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본질적 의미
- ② 삶의 고난과 좌절
- ③ 세속적 삶의 비판
- ④ 삶의 신비와 동경
- 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16. '흰 바람벽'을 영화 스크린으로 가정하고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자아가 '흰 바람벽'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시적 자아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한다.
- ② '흰 바람벽'에 비친 '무명셔츠'의 그림자는 스크린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 ③ '또 어인 일인가'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영상이 스크린에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려낸다.
- ④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병치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⑤ '흰 바람벽' 위로 지나가는 '글자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글자들을 연상시킨다.

18. <보기>를 통해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모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화상을 통해 얼굴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고독한 내면과 삶의 비애, 자기 확신, 그리고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 고자 하였다.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말년에 그린 두 폭의 자화상이 있다. 하나는 황금색 옷으로 치장하고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는 당당한 모습을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태와 회한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두 자화상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화상을 보는 기준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모사(模寫)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는 화가의 삶의 역정과 영혼의 기록이 있다.

- ① (가)의 '갈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 ② 두 자화상의 묘사 기법의 차이는 (가)에서 '그'와 '갈대'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 ③ (나)에서 ㉠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린 동기를 설명해 준다.
- ④ (나)의 시인의 생애는 한 폭의 자화상으로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 ⑤ 자화상의 인물을 통해 렘브란트의 내면을 읽는 것은 (다)에서 '나'를 시인 윤동주와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고 시를 읽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04. 09 [38~42]

(가)

내 님플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하오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헛 마 리신더*
 슬웃 븐 더* 아으
 니미 나를 헛 마 니즈시 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 * 베키더시니 : 우기던 사람이.
- * 몰헛 마 리신더 : 못 사람의 헛뜯는 말이로다.
- * 슬웃 븐 더 : 슬프구나.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 쇠를 쌓고 성 안에 담 쌓고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결
 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
 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 날 와 볼 하루 없으
 란

- 작자 미상 -

- * 쌍배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겹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이야기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읍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饌)*어디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되었으며
 금의화식(錦衣華飾)*어디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되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 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옥식진찬, 금의화식 : 좋은 음식과 의복.
- * 맥반염장, 현순백결 :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 용정 : 곡식을 찜음.

38.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 ① 현실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을 원망(怨望)하고 있다.
- ③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39. (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와 대조를 통해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설명적 진술을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41.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린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 ① 자신을 '벌나비'에 빚댄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⑤ 공명(功名)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결백과 심적 상황을 암시한다.
- ② ㉡: 화자와 '너'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의미한다.
- ③ ㉢: '너'에 대한 그리움과 가벼운 책망이 공존한다.
- ④ ㉣: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지닌 대화 상대자이다.
- ⑤ ㉣: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